

## 속리산의 깨끗한 자연에서 청결하게 사육 육질과 맛 뛰어난 닭고기 생산 충북 보은 '황해농장'

글 | 정승일 기자(jsiid@naver.com)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유명한 충북 보은군 장안면은 속리산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한다. 속리산 계곡의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어떠한 병도 치료해 줄 것만 같다. 이러한 좋은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닭을 생산하고 있는 농장이 있어 화제다. 바로 충북 보은군 장안면에 위치한 황해농장이 바로 그곳이다.



닭을 돌보는 신선봉 대표



농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역시설

## 26년의 노하우로 육계사육

황해농장(대표 신선봉)의 닭은 속리산의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건강하게 자라 육질과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황해농장의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깨끗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농장 입구 양쪽에는 꽃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상추, 부추 등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 등 농장 사장님의 부지런함을 엿볼 수 있다.

황해농장의 신선봉 대표는 26년 전 지인의 권유로 부인과 함께 닭을 사육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전까지 농사일만 하다가 시작한 토종닭 사육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신선봉 대표는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이 많아 부인 강태순씨가 농장일의 전반적인 것들을 조율하고 경영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6년여 동안 토종닭을 사육하면서 사양관리의 어려움과 질병발생 등으로 실패를 하던 중 육계 계열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본격적으로 육계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토종닭을 사육하면서 가진 노하우가 있었

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부인과 함께 육계의 사양관리에서부터 질병 관리에 이르기까지 배우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전에는 농사일에만 매달려있던 신선봉 대표도 닭이 입추되면 농사일이 먼저가 아닌 자식 같은 닭들을 돌보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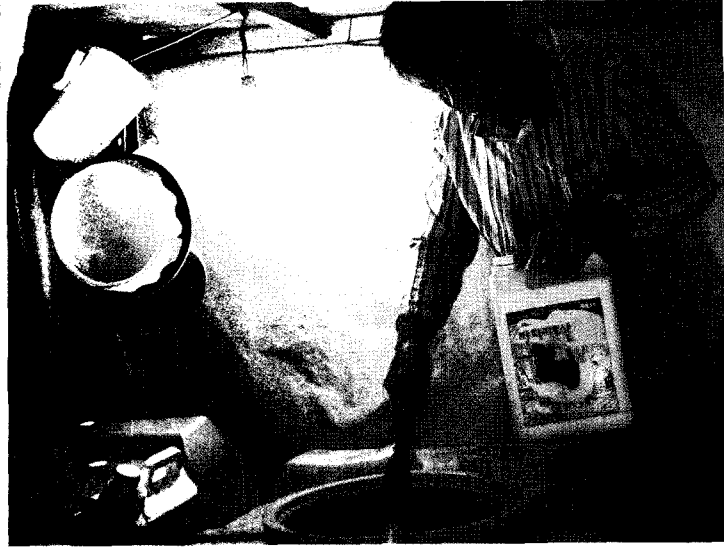
하지만 2004년 3월 때 아닌 폭설로 계사 2동이 모두 무너져 닭들은 모두 폐사하고 계사를 다시 건축해야만 했다. 하지만 속리산 국립공원에 근접해 있어 허가를 다시 받는 것부터가 난관이었다. 농장이 서원계곡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 중에 하나여서 군청에서는 다시 허가를 내주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20년 넘게 육계를 사육해 왔고, 그동안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군청의 허가를 다시 받아 2005년 계사를 신축했다.

## 청결한 사양관리로 높은 사육성적 유지

황해농장의 사육성적이 20년 동안 꾸준히 좋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먼저 청결한 농장관리다. 농장 입구에는 차단방역을 위해



황해농장의 건강한 닭



반디키토산을 투여하는 모습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축사주변은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고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다.

신선봉 대표는 부패하거나, 썩은 음식물 등이 질병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철저한 관리로 황해농장은 여름에도 파리, 모기 등의 해충이 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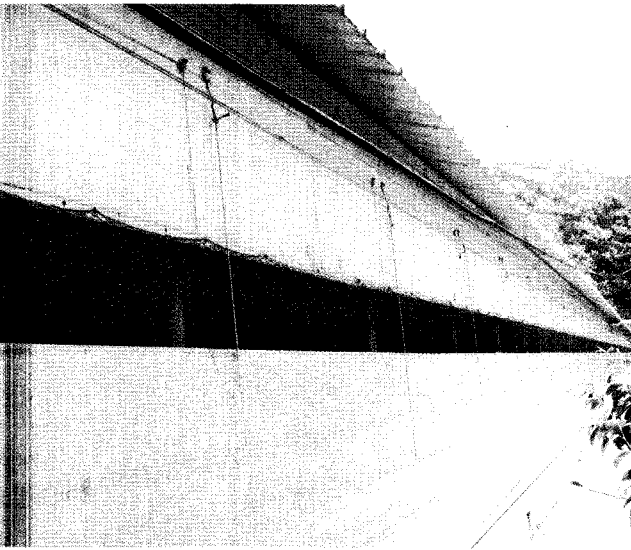
### 26년의 노하우로 육성을 향상

두 번째로 26년 동안 육계를 사육하면서 수많은 약품과 영양제, 사료 첨가제를 사용해본 결과 12년 전부터 필요한 약품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첨가제가 있다고 한다. 키토산이 함유된 반디키토산은 비타민과 키틴·키토산이 함유되어 있어 관절보강과 육성을 향상, 면역력 증강, 간, 장 기능을 강화해준다고 한다. 또한 발육촉진 및 사료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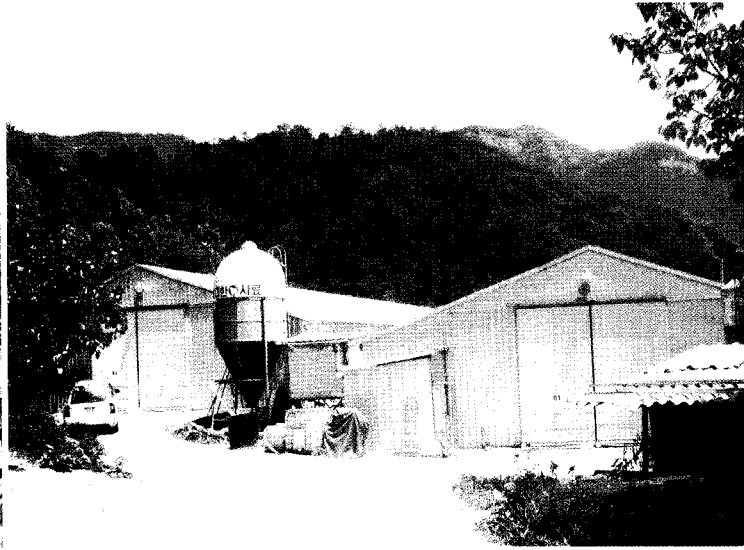
율 증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커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반디키토산을 처음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절이상으로 출하하지 못하는 닭들이 발생하면서부터라고 했다. 반디키토산을 먹이면서 다리에 이상이 생기는 닭들이 현저히 감소했고, 발육이 촉진되었으며 출하시 B급 발생이 줄었다고 한다. 또한 일반 닭고기에 비해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닭 출하 시에는 닭들의 뼈대가 튼튼해 작업하기가 수월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선봉 대표는 반디키토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매일아침 반디키토산을 음수에 투여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고 한다. 새벽에 반디키토산을 투여하는 이유는 아침시간에 닭들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음수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꾸로 설치된 윈치커튼



황해농장

반디키토산을 투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일령부터 시작해야만 병아리 때부터 키토산의 영향으로 소화흡수가 향상돼 후기 때까지 닭들이 잘 자란다고 한다.

#### 연구를 통해 개발한 환기관리

세 번째는 신선봉 대표만의 환기관리 방법이다. 황해농장에는 특별하게 갖춰진 환기시스템이 없이 계사의 끝에 웬 2대만 설치되어 있다. 26년 동안 여러 환기시스템들을 보고 설치도 해봤지만 비용대비 좋은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2005년 계사를 신축할 때 설계에 직접 참여해 농장의 전반에 걸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사를 신축하게 되었다.

신선봉 대표는 그전까지 생각만하고 있었던 환기방법을 직접 시도해 보기로 결심하고 윈치커튼을 위에서 아래로 열리도록 설치했

다. 처음 시도해 보는 방법이지만 26년 동안 닭을 사육한 자신의 노하우를 믿었다. 결과는 대 만족이었다. 계절과 바람의 영향에 따라 계사 양쪽의 윈치커튼의 높낮이를 조절해 계사내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닭들에게 호흡기 질병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연료비는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신선봉 대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지런히 닭들을 관찰해 일령별로 닭들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한다.

26년 동안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육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닭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줘 건강하고 품질 좋은 닭고기를 생산하는 신선봉 대표야말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육계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